

# 간호대학생의 직업가치관이 전공몰입에 미치는 영향 : 간호사 이미지 매개효과

조은희<sup>1</sup> · 류정림<sup>2</sup> · 김신희<sup>3</sup>

<sup>1,2</sup>군산간호대학교 조교수 · <sup>3</sup>원광보건대학교 조교수

## Influence of Nursing Students' Work Value on Major Commitment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Nurses' Image

Eun Hee Jo<sup>1</sup> · Jeong Lim Ryu<sup>2</sup> · Shin Hee Kim<sup>3</sup>

<sup>1,2</sup>*Kunsan College of Nursing, Assistant professor*

<sup>3</sup>*Department of Nursing, Wonkwang Health Science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한국간호연구학회지 『별책』 제5권 제2호 2021년 6월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Research

Vol. 5, No. 2, June. 2021



# 간호대학생의 직업가치관이 전공몰입에 미치는 영향 : 간호사 이미지 매개효과

조은희<sup>1</sup> · 류정림<sup>2</sup> · 김신희<sup>3</sup>

<sup>1,2</sup>군산간호대학교 조교수 · <sup>3</sup>원광보건대학교 조교수

## Influence of Nursing Students' Work Value on Major Commitment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Nurses' Image

Eun Hee Jo<sup>1</sup> · Jeong Lim Ryu<sup>2</sup> · Shin Hee Kim<sup>3</sup>

<sup>1,2</sup>*Kunsan College of Nursing, Assistant professor*

<sup>3</sup>*Department of Nursing, Wonkwang Health Science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 Abstract

**Purpose** : This study investigated the mediating effect of nurses' imag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 value and major commitment among nursing students. **Methods** : Data of 156 nursing students were collected from January 3th to January 20th, 2020. They were analyzed using the independent t-test, one way analysis of variance,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regression with the SPSS/WIN 23.0 program. A mediation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the Baron and Kenny method and Sobel test. **Results** : There was significant correlation found between work value and nurses' image( $r = .56, p < .001$ ), work value and major commitment( $r = .66, p < .001$ ), and nurses' image and major commitment ( $r = .55, p < .001$ ). Nurses' image had a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 value and major commitment. **Conclusion** : We found the importance of the role of nurses' image as a partial mediating variable. Therefore, to improve the major commitment of nursing students, it is necessary to enhance the work value and nurses' image. To achieve this, close cooperation and strategies to enhance nurses' image are necessary not only with universities, but also with the Korean Nurses Association and hospitals. In addition, universities need systematic nursing educational programs and curriculum development studies to establish a positive work value and nurses' image.

**Key words** : Social Values, Work Engagement, Eidetic Imagery, Students, Nursing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ronavirus Disease 2019) 팬데믹의 확산으로 의료환경이 급속히 변화됨에 따라 간호분야도 사회변화의 흐름에 맞춰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간호사들에게 새로운 역할 적응이 가능하도록 간호교육의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간호교육은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역할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면서,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진로 방향을 설정하고, 진로 결정 시 고려되어야 할 보편적 직업가치관[1]을 형성하는 것은 중요하다.

직업가치관은 직업이나 직무에 대해서 개인이 갖게 되는 일종의 사고방식이며 가치 기준으로 가족, 학교 및 직업 환경뿐 아니라 사회 매체와 상호작용을 통하여 발달되며 개인의 직업선택에 있어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2]. 이처럼 직업가치관은 개인의 사고방식과 가치 기준으로 직업선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간호대학생의 직업가치관을 형성하고 강화시키는 것은 간호교육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문제이다. 간호대학생의 직업에 대한 가치관은 단기간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대학 기간 동안 다양한 이론과 실습교육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전공몰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3]. 전공몰입은 재학 중에 자신의 전공에 대한 심리적 애착으로, 이를 통해 미래사회인으로서 목표를 가지고 성공가능성을 높여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3]. 전공몰입을 한 경우 정확한 목표의식을 갖게 되어 전공과 관련된 분야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희망과 자발적 의지가 생기게 된다[4].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전공몰입은 자신이 선택한 간호사란 직업을 잘 수행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세워 실행함으로써 성공적인 간호사로서의 직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졸업 후 간호사로서의 역할에 영향을 미친다.

간호사 이미지는 간호사에 대한 신념, 관념, 생각, 가치, 인상의 집합체이다[5]. 최근 간호사 이미지는 과거에 비해 취업의 용이성, 직업의 안정성과 전문직으

로 인식하였고[6], 코로나 팬데믹 이후 다양한 매체를 통한 간호사의 역할 수행과 노력으로 인하여 긍정적 간호사 이미지로 변화하고 있다. 이처럼 간호사 이미지는 대상자의 신체적, 정신적 질병으로부터 회복하도록 돕는 국민 건강관리자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연구자, 교육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전문직 간호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면서[6],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힘든 직업, 경직된 조직문화, 여성적인 직업, 독자성과 자율성의 제한 등의 부정적 간호사 이미지가 남아[7] 간호사 직업선택의 장애요인이 된다[8]. 그러나 긍정적인 간호사 이미지는 간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신의 일에 대한 가치와 자부심과 환자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친다[9,10].

간호대학생이 생각하는 간호사 이미지는 입학 초기에는 일반 대중과 같은 유사한 관점을 가지고 있지만 대학교육을 통하여 교육을 받는 동안 간호사의 역할, 신념, 가치, 윤리적 표준 등을 내면화하여 자신의 이미지와 행동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된다[11]. 간호대학생은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론을 학습한 후 실습을 통하여 이론에서 배웠던 다양한 지식을 실습을 통하여 직접 경험하고 습득한다. 하지만 실제로 임상실습을 통하여 간호수행에 있어 이론과 실제의 차이를 경험하고, 간호사의 긍정적이지 못한 비교육적 태도 등은 간호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이미지를 형성하게 하여 향후 미래의 간호사로서 간호업무수행과 자긍심에 부정적 요인이 된다[7,11]. 따라서 간호사의 긍정적 이미지 형성은 향후 간호사로 직업을 수행해야 할 간호대학생에게 전문직으로서 자긍심을 갖게 하는 중요한 문제로 간호사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긍정적인 이미지로 변화시키기 위한 교육과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선행연구에서 직업가치관은 개인이 직업에 대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관점으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행동의 기본적 기준이며 가치판단 근거로 개인의 직업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2,12] 전공몰입과 관계가 있고[4], 간호사 이미지는 간호의 본질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으로 직업가치관 [13]과 관계가 있으며, 전공몰입의 영향요인[14]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이 졸업 후 임상에서 전문직 간호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신의 직업적 가치관과 올바른 간호사 이미지 형성은 중요하며, 간호사로서 전문적 역량을 갖추도록 간호학 전공몰입과 관련된 연구는 필요하다.

또한 간호대학생이 직업을 선택하고 수행함에 있어 직업가치관과 간호사 이미지는 매우 중요한 변인으로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직업가치관, 간호사 이미지에 대한 단편적 연구는 진행되었지만 간호대학생의 직업가치관과 전공몰입에서 간호사 이미지의 매개효과를 확인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직업가치관과 전공몰입에서 간호사 이미지의 매개효과를 확인함으로써 대학 재학 기간에 올바른 직업가치관과 바람직한 간호사 이미지를 형성하도록 하고, 간호에 대한 가치관 및 자긍심을 증진시키고, 전공몰입을 강화시켜 지속 가능한 직업이 되도록 간호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직업가치관, 간호사 이미지, 전공몰입 정도를 파악하고, 직업가치관과 전공몰입관계에서 간호사 이미지의 매개효과를 규명하기 위함이다.

- 간호대학생의 직업가치관, 간호사 이미지, 전공몰입 정도를 파악한다.
- 간호대학생의 직업가치관, 간호사 이미지, 전공몰입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간호대학생의 전공몰입의 영향을 주는 변수를 파악하고 직업가치관과 전공몰입에서 간호사 이미지의 매개효과를 확인한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직업가치관과 전공몰입 관계에서 간호사 이미지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Figure 1).

###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J도 소재한 3개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 217명을 편의표집하였다. G\*power 3.1.9.7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에 필요한 적정 표본수를 산출한 결과, 유의수준( $\alpha$ ) .05, 중간 효과크기(f) .15, 검정력( $1-\beta$ ) .90, 독립변수 13개로 하였을 때 최소 표본 수는 189명이었고 탈락률 10%을 고려하여 217명을 연구대상자로 하였다.

### 3. 연구도구

#### 1) 직업가치관

직업가치관은 Kim과 Choi[15]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47문항으로 ‘실재적 가치’ 8문항, ‘탐구적 가치’ 8문항, ‘예술적 가치’ 8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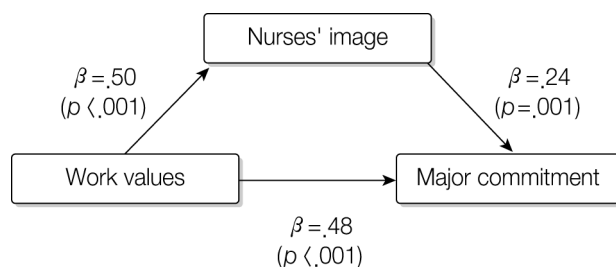


Figure 1. Model for the mediating effect

‘사회적 가치’ 8문항, ‘주도적 가치’ 8문항, ‘관습적 가치’ 8문항의 6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직업가치관이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89였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94이었다.

## 2) 전공몰입

전공몰입은 Jackson과 Marsh[16]가 개발한 몰입 상태 척도(Flow State Scale)를 Kim[17]이 우리나라 대학생 실정에 적합하게 이론과 실습 상황을 고려하여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34문항으로 ‘정서적 요인’ 10문항, ‘통제감 및 행동적 요인’ 5문항, ‘지적 호기심 요인’ 8문항, ‘시간 흐름의 변화’ 4문항의 4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에 대한 몰입경험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97였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97이었다.

## 3) 간호사 이미지

간호사 이미지는 Yang 등[10]이 개발한 간호사 이미지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18문항으로 ‘배려적 리더십’ 7문항, ‘전문직 역량’ 5문항, ‘직업적 자긍심’ 3문항, ‘직업윤리관’ 3문항의 4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94였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95였다.

## 4.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J도 소재 일개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1~4학년을 대상으로 2020년 1월 3일부터 1월 20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수집을 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며 연구대상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라도 철회가 가능하고, 수집된 자료는 연구의 목적만으로 사용할 것과 연구대상자의 익명성을 보장함을 설명하였다. 설문지는 자가 보고식으로 이루어졌고, 설문에 소요된 시간은 10분가량이며 설문에 참여한 대상자에게는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 5.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산출하였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업가치관, 간호사 이미지, 전공몰입 차이는 Independent t-test와 one-way ANOVA로 사용하였고, 사후검증으로 Scheffé test를 실시하였다.
- 대상자의 직업가치관, 간호사 이미지, 전공몰입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산출하였다.
- 대상자의 직업가치관과 전공몰입의 관계에서 간호사 이미지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Baron과 Kenny[18]가 제시한 절차에 따라 3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매개효과에 대한 유의성 검정은 Sobel-test를 이용하였다.

## 6. 윤리적 고려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고려를 위해 연구자가 직접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한 후 연구대상자의 의지에 따라 연구 참여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연구 참여에 동의한 후에도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없음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익명성이 보장됨을 설명하였다.

연구자료는 개인 신상 확인이 불가능하도록 코드화하여 철저히 관리하였으며, 별도의 공간에 보관하고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 연구대상자 개인정보를 보호하였다. 연구자료의 보관은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15

조에 따라 연구가 종료된 시점부터 3년간 보관 후 파쇄될 것임을 설명하였다.

### Ⅲ. 연구 결과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변수의 차이분석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여

자가 116명(74.4%)이었고, 평균 연령은 22.1세( $\pm 2.40$ )이었다. 대상자들의 학년은 3학년이 50명(32.1%), 4학년 49명(31.4%), 2학년 34명(21.8%), 1학년이 23명(14.7%)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상태는 ‘중’정도가 62명(39.7%), ‘간호학과 지원 동기로는 ‘적성과 흥미가 적합해서’가 69명(44.2%), 가족 중 간호와 관련된 직업 유무에서 ‘무’가 102명(65.4%)으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임상실습 경험 유무에서는 ‘없음’이 79명(50.6%), ‘있음’이 77명(49.4%)이었으며 졸업 후 첫 희망진로는 ‘상급 및 대학병원’이 107명(68.6%)으로 가

Table 1. Differences in Variance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 = 156)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Work value		Nurses' image		Major commitment	
			M $\pm$ SD	t/F(p) Scheffè	M $\pm$ SD	t/F(p) Scheffè	M $\pm$ SD	t/F(p) Scheffè
Gender	Female	116(74.4)	3.93 $\pm$ 0.47	.95	4.27 $\pm$ 0.62	1.31	3.87 $\pm$ 0.70	-.04
	Male	40(25.6)	3.85 $\pm$ 0.49	(.341)	4.12 $\pm$ 0.69	(.193)	3.88 $\pm$ 0.80	(.968)
Age(years) 22.10 $\pm$ 2.40	$\leq 22$	98(62.8)	3.86 $\pm$ 0.49	-1.65	4.22 $\pm$ 0.66	-.43	3.79 $\pm$ 0.76	-1.82
	$\geq 23$	58(37.2)	3.99 $\pm$ 0.44	(.102)	4.26 $\pm$ 0.61	(.668)	4.01 $\pm$ 0.64	(.071)
Grade	1	23(14.7)	3.95 $\pm$ 0.68		4.10 $\pm$ 0.74		3.85 $\pm$ 0.98	
	2	34(21.8)	3.90 $\pm$ 0.31	.62	4.24 $\pm$ 0.54	.48	3.85 $\pm$ 0.63	.19
	3	50(32.1)	3.85 $\pm$ 0.50	(.606)	4.29 $\pm$ 0.62	(.694)	3.84 $\pm$ 0.68	(.906)
	4	49(31.4)	3.97 $\pm$ 0.45		4.24 $\pm$ 0.68		3.94 $\pm$ 0.71	
Economic status	Low <sup>a</sup>	29(18.6)	4.00 $\pm$ 0.51	3.85	4.37 $\pm$ 0.56		3.86 $\pm$ 0.76	
	Average <sup>b</sup>	62(39.7)	3.78 $\pm$ 0.41	(.023)	4.19 $\pm$ 0.65	.76 (.467)	3.79 $\pm$ 0.72	.87 (.423)
	High <sup>c</sup>	65(41.7)	3.99 $\pm$ 0.51	b < c*	4.22 $\pm$ 0.66		3.93 $\pm$ 0.72	
Motivation of entrance	School grade <sup>a</sup>	12( 7.7)	3.69 $\pm$ 0.28		3.79 $\pm$ 0.42		3.67 $\pm$ 0.39	
	Attitude & interest <sup>b</sup>	69(44.2)	4.04 $\pm$ 0.48		4.43 $\pm$ 0.53		4.12 $\pm$ 0.67	
	Recommendation of family and surrounding <sup>c</sup>	26(16.7)	3.96 $\pm$ 0.34	3.18 (.015)	4.37 $\pm$ 0.57	6.57 (<.001)	3.970 $\pm$ .75	5.62 (<.001)
	Image of profession <sup>d</sup>	18(11.5)	3.76 $\pm$ 0.61		4.19 $\pm$ 0.67	a,e < b*	3.64 $\pm$ 0.78	b > e*
	Considering employment <sup>e</sup>	31(19.9)	3.78 $\pm$ 0.49		3.88 $\pm$ 0.76		3.48 $\pm$ 0.69	
One of family	Yes	54(34.6)	3.84 $\pm$ 0.52	-1.44	4.17 $\pm$ 0.58	-.95	3.73 $\pm$ 0.74	-1.77
	No	102(65.4)	3.95 $\pm$ 0.45	(.152)	4.27 $\pm$ 0.67	(.341)	3.95 $\pm$ .71	(.079)
Experience of clinical practice	Yes	77(49.4)	3.99 $\pm$ 0.49	1.88	4.29 $\pm$ 0.67	1.16	4.01 $\pm$ 0.70	2.26
	No	79(50.6)	3.84 $\pm$ 0.46	(.062)	4.18 $\pm$ 0.60	(.247)	3.75 $\pm$ 0.73	(.025)
Plans for after graduation	Tertiary hospitals	107(68.6)	3.97 $\pm$ 0.47		4.27 $\pm$ 0.64		3.99 $\pm$ 0.69	
	Hospitals	18(11.5)	3.90 $\pm$ 0.55	2.39	4.30 $\pm$ 0.53	1.00	3.70 $\pm$ 0.79	3.04
	Civil Service	19(12.2)	3.66 $\pm$ 0.44	(.071)	4.07 $\pm$ 0.64	(.394)	3.53 $\pm$ 0.56	(.031)
	etc	12( 7.7)	3.84 $\pm$ 0.40		4.04 $\pm$ 0.76		3.69 $\pm$ 0.95	

\*Scheffè test, M=Mean, SD=Standard deviation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Variables

(N = 156)

Variables	M±SD	Possible range	Skewness	Kurtosis
Work value	3.91±0.48	1~5	.26	0.20
Nurses' image	4.23±0.64	1~5	.84	1.09
Major commitment	3.88±0.73	1~5	.24	0.53

M=Mean, SD=Standard deviation

Table 3. Correlation Relationships among the Variables

(N = 156)

Variables	Work value	Nurses' image
	r(p)	
Work value	1	
Nurses' image	.56(<.001)	1
Major commitment	.66(<.001)	.55(<.001)

장 많았으며 ‘공무원’이 19명(12.2%), 종합병원 18명(11.5%), 기타가 12명(7.7%)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분석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분석 결과 직업가치관은 경제상태( $F=3.85$ ,  $p=.023$ )와 입학동기( $F=3.18$ ,  $p=.015$ )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 경제상태가 중인 경우보다 상인 경우가 직업가치관의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간호학과 입학동기에서도 유의한 차이는 있었으나( $F=3.18$ ,  $p=.015$ ) 사후분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간호사 이미지는 입학동기( $F=6.57$ ,  $p<.001$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사후분석 결과 적성과 흥미에 따라 입학한 경우가 성적에 맞춰서 입학한 경우와 취업률을 고려하여 입학한 경우보다 유의하게 점수가 더 높았다. 전공몰입은 간호학과 입학동기( $F=5.62$ ,  $p<.001$ ), 임상실습경험( $t=2.26$ ,  $p=.025$ ), 졸업 후 첫 희망진료( $F=3.04$ ,  $p=.061$ )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 간호학과 입학동기 중 적성과 흥미에 따라 입학한 경우가 취업률을 고려해서 입학한 경우보다 유의하게 전공몰입의 정도가 높았다.

## 2. 대상자의 직업가치관, 간호사 이미지, 전공몰입 정도

대상자의 직업가치관, 간호사 이미지, 전공몰입의

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직업가치관은 5점 만점 중 평균 3.91±0.48점이었고, 간호사 이미지는 5점 만점 중 4.23±0.64점, 전공몰입은 5점 만점 중 평균 3.88±0.73점으로 나타났다.

## 3. 대상자의 직업가치관, 간호사 이미지, 전공몰입 간의 상관관계

직업가치관, 간호사 이미지, 전공몰입의 상관관계는 <Table 3>과 같다. 직업가치관은 간호사 이미지( $r=.56$ ,  $p<.001$ ), 전공몰입( $r=.66$ ,  $p<.001$ )과 각각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이 중 전공몰입의 상관계수가 .66으로 상관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 이미지와 전공몰입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r=.55$ ,  $p<.001$ ).

## 4. 대상자의 직업가치관과 전공몰입 간의 관계에서 간호사 이미지 매개효과

연구대상자의 직업가치관과 전공몰입 간의 관계에서 간호사 이미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활용한 3단계 매개효과 검증방법[17]을 활용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전에 종속변수의 자기상관과 독립변수 간





한 직업으로 가치있는 일을 하는 직업이란 인식과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하여 방역체계의 중심에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간호사의 직업에 대한 가치를 더욱 인정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결과 간호사 이미지는 5점 만점 4.23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와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간호학과 신입생 대상 연구[13]에서 4.12점, 3학년 대상의 연구[22]에서 3.80점으로 선행연구보다 본 연구의 간호사 이미지 정도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직무스트레스, 태움으로 인한 간호사의 부정적 이미지가 있지만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이 지속되면서 일선에서 전파 우려에도 불구하고 헌신적으로 신종감염병의 예방, 자가격리자 및 확진자 돌봄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모습이 매체를 통하여 전달되면서 긍정적 간호사 이미지가 형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긍정적인 간호사 이미지는 저학년의 경우 간호대학 입학 전부터 여러 대중매체나 서적 등을 통해 간호사에 대한 전문적 이미지가 형성되었고, 고학년은 전문직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다양한 전공지식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향후 자신이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할 주체로서 전문직으로서 긍정적 간호사 이미지가 형성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사 이미지는 입학동기에서 성적에 맞춰, 취업이 보장되어 간호학과에 입학한 경우보다 적성과 흥미에 적합해서 입학한 경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Lee 등[23]의 연구와는 상반되는 결과로 이러한 차이는 본 연구대상자의 연령층을 살펴보면 23세 이상이 약 40%를 차지함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즉 나이 많은 대학생은 타 대학 및 전공을 경험하고 다시 간호대학에 입학하거나 사회생활을 경험하고 입학했기 때문에 간호학 학업에 대한 동기 부여와 자신의 적성을 잘 고려한 경우라 할 수 있어 간호사 이미지가 높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긍정적인 간호사 이미지를 지니고 있을지라도 전공교육과 임상실습을 통해 변화되기도 한다. 긍정적인 변화와 달리 간호사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될 경우 본인

의 간호사에 대한 신념과 가치관을 손상시켜 업무 효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 이후 임상수행능력, 간호에 대한 정체적 확립에도 영향[9,10]을 주기 때문에 간호대학 시절 긍정적인 간호사 이미지를 확립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결과 전공몰입은 4점 만점 3.88점으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24] 3.69점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대상자의 특성 및 환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즉 학점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에 만족할수록 전공몰입의 정도가 높아진다는 연구결과[24]와 그 맥락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몰입의 차이는 입학동기, 임상실습 경험, 졸업 후 첫 희망진로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본인의 적성과 흥미를 고려하여 진학한 경우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학업성취도가 높아져 전공에 몰입을 잘할 수 있었다는 선행연구[25]의 결과를 지지하였다. 따라서 간호학과를 선택 시 부모님과 지인의 추천에 의한 선택이 기보다는 학생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고려하여 선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임상실습을 경험한 경우 실습기관의 특성과 경험에서 오는 실습만족도에 따라 전공에 대한 애착정도가 커짐으로 간호교육에 있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임상실습에 대한 질적 관리가 중요함으로 임상실습의 교육환경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간호대학생이 간호학 전공에 몰입을 하게 되면 목표가 명확해지고, 간호사로서 근무하고자 하는 자발적 의지가 생겨 긍정적인 대학생활을 영위함과 동시에 취업으로 연결된다. 또한 전공몰입은 이후 전문직 간호사로 그 역할을 수행함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직업가치관과 함께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 직업가치관과 전공몰입, 간호사 이미지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나 Kang의 연구[26], Lee의 연구[27]결과와 일치하였다. 직업가치관이 명확할수록 간호사 이미지가 향상되어 전공몰입도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신의 직업에 대한 직업가치관이 명확할수록 직

무 전반에 만족할 가능성이 높고, 이후 직업에 대한 만족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처럼 직업가치관은 자신의 성장 및 교육 환경, 성격 등의 여러 복합적인 상호작용으로 형성된다는 연구결과[28]를 지지한다. 따라서 직업에 대한 만족은 본인의 전공에 대한 몰입정도를 높이는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간호대학생의 전공몰입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간호대학생의 직업가치관의 인식 정도를 파악하여 직업가치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또한 자신의 진로에 대한 자기확신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명확한 직업에 대한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므로 긍정적 간호사 이미지는 간호학 전공을 선택하고, 간호대학생으로서 대학생활과 학업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전공몰입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한 선행연구[29]와 맥락을 같이 한다.

본 연구의 결과 간호대학생의 직업가치관과 전공몰입에 미치는 영향에서 간호사 이미지의 매개효과를 확인한 결과, 간호사 이미지는 직업가치관과 전공몰입 간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직업가치관이 전공몰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간호사 이미지를 매개로 전공몰입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가치관과 전공몰입 간의 관계에서 간호사 이미지의 매개효과를 확인한 국내외 연구는 없어 직접비교는 어렵지만 대학생을 대상으로 직업가치관이 전공몰입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26], 긍정적인 간호사 이미지는 간호대학생들에게 학과에 대한 몰입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27]가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

또한 전공에 대한 몰입이 되면 전공학습에 대한 열망과 궁금증이 유발되고, 새로운 과제에 도전하며 성취하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된다. 이와 더불어 자신의 전공에 대해 정확한 목표의식을 갖게되어 간호사로서 근무하고자 하는 자발적 의지가 생겨 긍정적인 학교생활과 지속가능한 직장생활로 연결될 것이다. 그러나 간호학과는 진로가 정해져 있으며 높은 취업률로 인해 자신의 진로에 대한 고민과 자기이해 및 분석이 부족한 상태에서 진로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30].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 및 연장으로

임상현장에서의 간호사들의 번아웃 증후군이 증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간호 분야의 인적자원의 이탈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간호사 직업에 대한 가치관이 확고한 간호사라면 이러한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대상자를 간호함에 있어 이직에 대한 의도가 증가됨에도 직접적으로 간호직에서 이탈함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선행연구[13]를 근거로 올바른 직업가치관 형성을 돕기 위한 간호전문직관 및 간호사 이미지 향상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은 필요하다.

간호교육에서 이론뿐 아니라 임상실습이 필수 교육인 간호대학생들이 임상실습을 통하여 간호사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형성할 수 있도록 협회, 의료기관, 대학이 협력하여 임상실습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대학은 간호대학생의 전공몰입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과과정뿐 아니라 교수자의 역량강화와 비교과프로그램의 활성화를 통하여 긍정적 직업가치관과 간호사 이미지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직업가치관이 전공몰입, 간호사 이미지의 정도를 파악하고, 직업가치관과 전공몰입 간의 관계에서 간호사 이미지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여 간호대학생의 직업가치관과 전공몰입, 간호사 이미지의 향상을 위한 간호교육 중재 프로그램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직업가치관과 전공몰입 간의 관계에서 간호사 이미지가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전공몰입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직업가치관과 간호사 이미지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대학 뿐 아니라 대한간호협회 및 의료기관 등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간호교육 교과과정과 비교과과정 개발 연구가 필요하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일 지역의 간호학과 학생들만을 대상

으로 연구하였기에 좀 더 광범위한 대상으로 확대 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전공몰입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좀 더 규명하여 전공몰입 증진을 위해 교과 및 비교과 과정에 반영해야 할 것을 제언한다. 셋째, 간호학과 학생들의 올바른 직업가치관 형성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비교과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전공몰입도 효과검증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 References

1. Kim MS. The analysis of nursing students' work value, career attitude maturity influence on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9;20(11):96-105. <https://doi.org/10.5762/KAIS.2019.20.11.96>
2. Lee JG. Effect of the career barriers and occupational values to the career self-efficacy of the students of agriculture specialized high school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009;22(1):127-143.
3. Park SK, Lee HS. The effect of perceived work values of university students' on major satisfaction and major commitment : Focused on university students of the hotel tourism management department. *Northeast Asia Tourism Research*. 2016;12(1): 219-235.
4. Kim JE, Kim HW. The effect of pre-service special education teacher's work value on major immersion about pre-service special education teachers : Center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major satisfaction. *Journal of Emotional & Behavioral Disorders*. 2019;35(4):77-96. <http://dx.doi.org/10.33770/JEBD.35.4.5>
5. Kalisch PA, Kalisch BJ. A comparative analysis of nurse and physician characters in the entertainment media. *Journal of Advanced Nursing*. 1986;11(2): 179-195.
6. Jeong HS, Yoo YS. Image of nurses as perceived by nursing students and image determina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010;24(1):29-38.
7. Han DL. Images of good nurses as perceived by nursing college students: A Q-methodological approach.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8;24(1):61-71. <https://doi.org/10.5977/jkasne.2018.24.1.61>
8. Neilson GR, Jones MC. What predicts the selection of nursing as a career choice in 5th and 6th year school students?. *Nurse Education Today*. 2012;32(5):588-593. <https://doi.org/10.1016/j.nedt.2011.06.011>
9. Choi J, Ha NS. The relationship among image of nurses, self esteem and professional socializa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009;15(1):54-63.
10. Yang KH, Choi GY, Yoon YS, Jo EH, Park SJ. Development of an instrument for the image of a nurse.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Research*. 2020;4(4):41-52. <https://doi.org/10.34089/jkn.2020.4.4.41>
11. Park SJ, Park BJ. Content analysis of nurse images perceived by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4;15(6): 3696-3705. <https://doi.org/10.5762/KAIS.2014.15.6.3696>
12. Kalleberg A. Work values and job reward: A theory of job satisfac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1977;42(1):124-143. <https://doi.org/10.2307/2117735>
13. Jang YM. The influence of nursing image, job value on nursing professionalism of first yea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Industrial Convergence*. 2019;17(3):31-38. <https://doi.org/10.22678/JIC.2019.17.3.031>
14. Hong EY. Convergence study of mediating effect of nursing professionalis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nurse image and satisfaction of major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2017;8(10):85-93. <https://doi.org/10.15207/JKCS.2017.8.10.085>

15. Kim JH, Choi BY.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work value scale for university students in holland.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2020;28(1):173-198.
16. Jackson SA, March HW.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scale to measure optimal experience: The flow state scale. *Journal of sport and exercise psychology*. 1996;18(1):17-35.
17. Kim HJ. The influence of college students' major satisfaction and flow experience on career decision efficacy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master's thesis]. Seoul:Sungkyunkwan University; 2007. p.66.
18. Baron RM, Kenny DA.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86;51(6):1173-1182.
19. Kim CH, Kim JY. The effect of clinical practice belonging, satisfaction with major, and work values on career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20;26(3): 259-268. <https://doi.org/10.5977/jkasne.2020.26.3.259>
20. Yu YM. The effect of psychological separation according to parents' social and economic status & the style of family system on job value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008;21(2):19-38.
21. Chang HG. The economic and job consciousness of korea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Human Studies*. 2009;1(16):7-40.
22. Kim YJ. Influence of major satisfaction, communication skills, image of nurses on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2020;14(8):265-276. <https://doi.org/10.21184/jkeia.2020.12.14.8.265>
23. Lee YJ, Jun SY. The influence of satisfaction about uniform and nurse image on nursing professionalism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Research*. 2021;5(1):55-69. <https://doi.org/10.34089/jknr.2021.5.1.55>
24. Shin SH, Lee JW, Kim CT. The effect of nursing college students' satisfaction with their major on their engagement in the major.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20;21(7):136-145. <https://doi.org/10.5762/KAIS.2020.21.7.136>
25. Nam SH. Major commitment and work values. *The Korean Society of Educational Psychology*. 2005; 19(1):223-242.
26. Kang JS. Effects of work values and career decision level on the major commitment of the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social welfar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8;19(2):447-455. <https://doi.org/10.5762/KAIS.2018.19.2.447>
27. Lee JY. A study on nurse image,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7;18(3):284-295. <https://doi.org/10.5762/KAIS.2017.18.3.284>
28. Park MS. The influence of professor' leadership types on major satisfaction and learning immersion.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018;20(6):3147-3137. <https://doi.org/10.37727/jkdas.2018.20.6.3127>
29. Lee HY, Park IN. The effects of nursing career experience programs on the career identity and nurse's image-focusing on regular high school students. *Health Service Management Review*. 2020;14(4):25-34. <https://doi.org/10.18014/hsmr.2020.14.4.25>
30. Bang KS, Cho JK. Recognition of nursing students and graduates on nursing and future career.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08;14(1):88-97. <https://doi.org/10.5977/jkasne.2008.14.1.088>